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통권 제80호(2019년 9월)) pp.101~146
 한국공인회계사회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인창열** / 이명곤***

- | | |
|----------------------|------------|
| I. 서론 | IV. 실증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
| III.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 |

개요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 현상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슈화되었고, 이후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수주산업에서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및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주산업은 일반적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정과 경영자의 판단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만약 추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절한 공사진행률을 측정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고자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핵심감사제는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슈화되면서 다소 급하게 도입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핵심감사제의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점,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정보와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사환경과 유사한 미국, 독일 등이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어 국내환경에서 핵심감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이 감사시간, 이익의 질 및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이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며,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연구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

* 본 연구는 주저자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지도교수: 이명곤, 심사위원: 신호영, 나인철, 김중현, 장석진). 논문내용의 보안을 위해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E-mail: rebierth@hanyang.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leemg@hanyang.ac.kr)

투고일(2019년 5월 23일), 수정일(2019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2019년 7월 31일)

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핵심감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실무적·학문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며, 핵심감사제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핵심감사제, 감사시간,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인과 정보이용자 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기대차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기대와 인식을 파악하고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보고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2015년에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을 발표하였다.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의 기재, 감사업무수행이사 이름공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공시 강화,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기타정보 공시 강화 등이다.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주요 내용 중 일부인 핵심감사제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4조 4,860억원과 영업손실 430억원을 보고하였으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조 6,564억원과 영업손실 3조 399억원을 보고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실적보고는 주가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수주산업에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현상(회계절벽)이 발생하며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및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주산업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정과 경영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추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절한 공사진행률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판단을 한다면 공사진행률이 잘못 추정되어 왜곡된 손익을 보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고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핵심감사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수행하고,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서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수주산업의 특성상 공사진행률의 추정이 큰 문제이므로, 감사인은 공사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부분을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선정이

유, 감사절차, 감사결과)을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정보와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가 급하게 도입되어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핵심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감사환경과 유사한 미국, 독일 등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환경에서 핵심감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가 적용된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6년과 2017년에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며,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때 본 연구는 이익의 질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보수주의를 사용하며,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이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며,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및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은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강건성 분석으로 증분 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익의 질이 향상되며,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연구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상황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살펴봄으로써 핵심감사제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은 가설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은 결론을 작성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 현상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수주산업에서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및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주산업은 일반적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정과 경영자의 판단이 상당부분 필요하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공사진행률이 왜곡된다면 적절한 손익을 보고할 수 없다. 즉, 수주산업에서 회계절벽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사진행률 추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¹⁾ 또한 추정의 불확실성 및 추정치 변동에 대한 공시의 부족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고 올바른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핵심감사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감사사항(KAM)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수행하고,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서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²⁾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 감사 중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결정된다.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에 포함하여 유의적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한정적으로 핵심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감사제는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을 감사할 때 적용된다.³⁾ 즉,

- 1) 공사진행률은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누어 측정된다. 이때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할 경우 수익은 과대 인식될 수 있다. 즉,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사진행률은 과대평가되며, 공사진행률에 의해 측정되는 공사수익 및 손익도 과대평가된다. 또한 미청구공사 금액도 과대평가된다. 그리고 과대평가된 수익이 누적되면 특정 시점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2) 핵심감사제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핵심감사사항(KAM)관련 감사기준서인 ISA 701 (Communicating Key Audit Matters in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s)을 도입한 것이다.
- 3) 수주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 - 한129.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64 - 16.68에 따라 발생원가 기준으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핵심감사제는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입법을 적용하는 외감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이 모두 적용대상이다.⁴⁾ 또한 투입법을 적용하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해당 지배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면 해당 지배회사도 핵심감사제가 적용된다(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따라서 감사대상기업이 수주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선정된다. 즉, 금융자산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같은 수주산업의 회계 및 감사이슈와 무관한 사항들은 핵심감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은 공사진행률 추정과 연관된 부분을 핵심감사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⁵⁾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은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2) 공사에정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3) 산정된 공사진행률의 적절성, (4)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5)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이다.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핵심감사사항(또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핵심감사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관련 내용이 공시된 경우 관련 공시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고려되어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와 해당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면 된다.⁶⁾

4) 투입법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산출물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투입물 대비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들어간 기업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한 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

5)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수주산업의 특징은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대금회수의 불확실성, 빈번한 설계변경, 진척도 측정의 어려움과 원가기준 투입법 사용관행 등이 있다. 이러한 수주산업의 특징은 이익조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현승임 등 2016).

6) 핵심감사제 도입 이후 감사보고서 본문 사례를 ‘부록’에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핵심감사제

국내·외적으로 최근에 핵심감사사항을 공시하도록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실증연구보다 설문연구로 진행되었다.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Christensen et al.(2014)은 경영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주요감사사항(Critical Audit Matters)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⁷⁾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감사보고서보다 주요감사사항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투자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동일한 정보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감사보고서보다 주요감사사항으로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경우에 투자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Sirois et al.(2018)은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정보적 효용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정보이용자는 핵심감사사항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될 경우 재무제표의 공시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되어도 정보이용자는 감사품질의 향상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Brasel et al.(2016)은 인터넷 설문조사 통해 다양한 직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인의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공시하였다면 감사인의 법적책임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mbar et al.(2016)은 회계기준의 정밀성과 CAM의 공시가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애매모호한 회계기준(원칙중심)보다 정밀한 회계기준(규칙중심)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을 때 감사인의 책임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밀한 회계기준 하에서 감사를 수행하면서 CAM을 공시할 경우 감사인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윤 등(2016)은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개정사항이 국내 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기재되어도 감사품질과 재무보고품질이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 도입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주요감사사항

7) 미국은 Critical Audit Matters(CAM)로 표현되는 주요감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감사사항(CAM)과 국제감사보고기준의 핵심감사사항(KAM)은 정의 및 선정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용측면에서 유사하다(이재은 등 2015).

보고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것이다. 즉, 국내에서 핵심감사제의 기대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핵심감사제는 감사품질 및 재무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핵심감사제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김광윤 등(2016)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감사제 도입 이후 감사품질 및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감사시간

감사품질의 향상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이후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투입한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치이다. 일반적으로 감사업무에 투입한 시간이 많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감사시간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감사시간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Barron et al.(2001)은 소송위험이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이라고 보고한다. 지현미와 문상혁(2006)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위험과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송위험의 대용치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손실 보고여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보고할수록, 손실을 보고할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l et al.(2008)은 감사위험이 높게 평가될 경우 감사시간 또는 상급자의 투입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우용상과 이호영(2009)은 감사위험의 대용치로 재무제표 왜곡가능성과 지급보증을 사용하여 감사위험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높을수록, 지급보증을 제공할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규안과 박종일(2009)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낮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권수영과 기은선(2011)은 발생액의 질이 낮으면 해당기업의 불확실성과 내제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사위험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길수 등(2015)은 재량적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이사의 투입시간 비율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상욱과 조광희(2016)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할수록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소송위험, 사업위험, 이익의 질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할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감사시간의 결정요인은 감사인의

감사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관련된 과정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추정의 불확실성 및 중요정보의 왜곡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선정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심감사제에 따르면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익의 질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대응치로 이익의 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주산업에서 최근에 나타난 회계절벽 현상과 같이 이익의 급격한 감소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수주산업은 이익의 질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로 인해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이익의 질 대응치로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손성규 등(2006)은 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련성을 통해 감사업무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aramanis and Lennox(2008)는 감사시간과 이익조정 간의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여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류승우 등(2015)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대상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부심리시간과 초과 내부심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rth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더 이익조정을 적게 하며, 더 적시에 손실을 보고한다고 주장한다. 백혜원과 김지홍(2011)은 IFRS 도입 이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IFRS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이익조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호(2005)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이익조정의 크기가 감소하여 이익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Chan et al.(2008)에서는 SOX 도입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에서 이익조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장석진과 이명곤(20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며 비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의 질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처리의 보수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Francis and Krishnan(2002)과 Lee and

Mande(2003)는 미국에서 소송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의 도입 이후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증권민사소송개혁법 도입 이후 계속 기업불확실성 표명확률이 감소하여,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신창후와 김정교(2015)는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확률을 이용하여 제도 시행 이후 회계처리 보수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계처리의 보수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 완화되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원과 이경태(2008)는 소송위험의 대응치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한도액을 사용하여 소송위험과 회계처리의 보수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최현돌과 윤재원(2006)은 기업지배구조평가를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Ahmed and Duellman(2007)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김석현 등(2013)은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권수영 등(2015)은 감사파트너의 산업전문성과 회계처리의 보수성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진과 김정교(2015)는 감사인의 적격성이 높을수록, 외국감독기구에 등록된 회계법인일수록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 기업지배구조, 제도개선 등이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는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추정의 합리성에 대한 적극적인 회계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핵심감사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감사품질의 향상이다.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과 이익의 질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aramanis and Lennox 2008; 김현진과 김정교 2015; 류승우 등 2015). 따라서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면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라. 정보비대칭

정보비대칭은 경영자와 자본시장참여자들 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 심화된다면 정보적 열위에 있는 자본시장참여자들은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한다. 즉, 기업가치 평가에 왜곡이 발생하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며, 자본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정보비대칭을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으로 측정한다.

Bailey et al.(2003)은 미국에서 공정공시제도를 시행한 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한다. 김지홍 등(2005)은 국내에서도 공정공시제도가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남해정과 노밖은(2013)은 기업설명회의 공시품질이 좋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손성규 등(2009)은 경영자의 자발적인 공시정보가 정확할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영길 등(2013)은 경영자가 이익예측정보를 공시할수록 정보비대칭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Armstrong et al.(2010)은 유럽에서 IFRS 도입 이후 정보품질이 향상되어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식과 조상민(2014)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이후에 공시수준이 증가하여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석오(2007)는 이익조정과 정보비대칭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Jayaraman(2008)은 발생액의 질이 낮을 경우 정보비대칭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양동훈(2008)은 이익유연화와 정보비대칭 간에 음(-)의 관련성을 관찰하였다. Bhattacharya et al.(2013)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작을수록, 재무분석가 수가 작을수록 음(-)의 관련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Jiang and Kim(2002)은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Fehle(2004)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정보요구 수준이 증가하여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장석진과 이명곤(20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할수록 정보비대칭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시수준, 이익의 질, 지배구조 등에 따라 정보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선행연구들은 정보수준이 높아지고 이익의 질이 높으며 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정보비대칭이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감사제는 핵심감사사항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공시하여 정보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면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낮게 평가된다는 점에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기 위해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핵심감사사항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정된다. 그러므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핵심감사사항을 파악하고, 핵심감사사항 결정시 고려사항(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더 높게 평가되거나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 포함하여 유의적경영진판단이 수반된 재무제표 분야와 관련되는 유의적감사인판단, 보고기간 중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여 선정의 충분성 및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즉,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심재연(2018)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감사시간이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투입될 수 있다. 한편, 핵심감사사항은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거나 중요정보의 왜곡가능성이 높아 당해 연도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즉, 핵심감사사항은 추정의 불확실성 또는 중요정보의 왜곡가능성이 높은 사항이므로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위험이 높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수행한다. Raghunandan and Rama(2006)와 이명곤 등(2008)은 감사위험이 증가할수록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감사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내용(선정이유, 감사절차, 감사결과)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즉, 중점감사를 통해 확보한 감사증거에 대하여 자세한 서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성 등(2011)은 특기사항의 기재와 감사보고서차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다.

종합해보면 감사인은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중점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을 감사인의 노력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1.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수주산업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량적인 선택에 따라 보고되는 이익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즉, 수주산업에서 추정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견제하지 못한다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익의 왜곡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악용한다면 이익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DeAngelo 1981). 감사인의 전문성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발견한 왜곡이나 오류를 보고할 확률을 나타낸다. 즉,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과 감사대상기업의 지배기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이 선정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중점감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관련 부분에 포함된 왜곡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기술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류승우 등 2015; 손성규 등 2006).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가설 1이 지지된다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므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은 재무제표의 오류나 부정이 포함될 가능성(왜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이 감소하므로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을 왜곡하려는 이익조정행위가 억제될 것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는 손실을 발생하는 즉시 인식하고 이익을 지연하여 인식시키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Caramanis and Lennox(2008)는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희영과 권수영(2010)은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한다. 최정호와 이정우(2008)는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석현 등(2013)은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해보면 수주산업의 문제점은 산업특성 상 발생하는 추정의 불확실성을 악용한 이익조정이며,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이익의 질이라 할 수 있다. 높은 감사품질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이익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현행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만을 제시하며 감사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량이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단순한 감사의견의 제시가 아닌 보다 상세한 감사결과를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핵심감사제의 도입목적 중 하나는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공시정보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정보가 공시된다면 정보이용자와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고서는 기존에 제시되는 감사의견 이외에 핵심감사사항(핵심감사사항의 선정이유,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을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한다. 핵심감사사항은 당기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 또는 추정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이다. 즉, 기업의 위험과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가 제공된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 공시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가 향상되고 정보비대칭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Christensen et al.(2014)은 핵심감사사항이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투자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Sirois et al.(2018)은 핵심감사사항의 기재가 정보적 효용성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회계정보는 기업과 정보이용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보위험이 낮으므로, 정보비대칭이 완화될 것이다. 선행연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대응치로 이익의 질을 많이 사용하며,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hattacharya et al. 2013).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되어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 감사보고서의 정보가치 향상, 이익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정보비대칭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 연구는 가설 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 3.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은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연구모형 (1)과 같이 설정한다.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핵심감사제가 도입된 수주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다. 즉, 연구모형 (1)은 핵심감사제의 도입 전(2014년, 2015년)과 후(2016년, 2017년)를 비교하기 위한 모형이다. 연구모형 (1)의 종속 변수는 감사시간을 나타내는 TIME이며, 연구모형 (1)의 실험변수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여부를 의미하는 KAM이다. 연구모형 (1)에서 KAM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가설 1이 지지되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로 구성된다(Habib and Bhuiyan 2011; 권수영과 기은선 2011; 이양식과 박종찬 2017).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규모(SIZE), 총자산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손실보고여부(LOSS),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 BIG4감사인 여부(BIG4), 미청구공사(UNB), 수출액(FRN),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비중(IR),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CON), 상장시장더미(MK)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연도 및 산업에 따른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도더미(YR)와 산업더미(IND)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begin{aligned} TIME = & \alpha_0 + \alpha_1 KAM + \alpha_2 SIZE + \alpha_3 GRW + \alpha_4 LEV + \alpha_5 ROA + \alpha_6 LOSS \\ & + \alpha_7 OWN + \alpha_8 FOR + \alpha_9 BIG4 + \alpha_{10} UNB + \alpha_{11} FRN + \alpha_{12} IR + \alpha_{13} CON \\ & + \alpha_{14} MK + \sum YR + \sum IND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연구모형 (1)}$$

- TIME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KAM =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이면 1, 도입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총자산성장률(=(당해 연도 총자산-직전년도 총자산) / 직전년도 총자산)
 LEV = 부채비율(=부채/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 = 당기손실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

- OWN* = 대주주지분율
- FOR* = 외국인지분율;
- BIG4*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UNB* = 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총자산)
- FRN* = 수출액(=수출액/매출액)
- IR* =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매출채권+재고자산)/총자산
- CON*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1, 아니면 0
- MK*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이면 0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연구모형 (2)와 같이 설정한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 (2)를 이용하여 핵심감사제의 도입 전(2014년, 2015년)과 후(2016년, 2017년)를 비교한다. 연구모형 (2)의 종속변수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EQ1)과 회계처리의 보수성(EQ2)이며, 연구모형 (2)의 실험변수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여부를 의미하는 KAM이다. EQ1과 EQ2는 값이 클수록 이익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구모형 (2)에서 KAM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된다는 가설 2가 지지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규모(SIZE), 총자산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손실 보고여부(LOSS),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 BIG4감사인 여부(BIG4), 미청구공사(UNB), 무형자산(IA), 유형자산(TA), 유동비율(LIQ), 상장시장더미(MK)를 연구모형에 포함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도더미 및 산업더미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다(Cahan and Zhang 2006; Doyle et al. 2007; Khan and Watts 2009; 이명곤과 이세철 2009; 이보미와 박보영 2017; 인창열 2019)

$$EQ1(or EQ2) = \alpha_0 + \alpha_1KAM + \alpha_2SIZE + \alpha_3GRW + \alpha_4LEV + \alpha_5ROA + \alpha_6LOSS + \alpha_7OWN + \alpha_8FOR + \alpha_9BIG4 + \alpha_{10}UNB + \alpha_{11}IA + \alpha_{12}TA + \alpha_{13}LIQ + \alpha_{14}MK + \sum YR + \sum IND + \epsilon$$

연구모형 (2)

- EQ1* =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1)
- EQ2* = Khan and Watts(2009)가 제시한 보수주의 측정치
- KAM* =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이면 1, 도입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GRW* = 총자산성장률(=당해 연도 총자산-직전년도 총자산) / 직전년도 총자산)
- LEV* = 부채비율(=부채/자산)
-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LOSS* =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

<i>OWN</i>	=	대주주지분율
<i>FOR</i>	=	외국인지분율
<i>BIG4</i>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i>UNB</i>	=	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총자산)
<i>IA</i>	=	무형자산(=무형자산/총자산)
<i>TA</i>	=	유형자산(=유형자산/총자산)
<i>LIQ</i>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i>MK</i>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이면 0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연구모형 (3)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모형 (3)에서 종속변수는 일별주식주식률의 변동성(INFO1)과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INFO2)이다. 연구모형 (3)의 실험변수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여부를 의미하는 KAM이다. INFO1과 INFO2의 값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모형 (3)에서 KAM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된다.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는 기업규모(SIZE), 총자산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손실 보고여부(LOSS),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 BIG4감사인 여부(BIG4), 미청구공사(UNB), 무형자산(IA), 유형자산(TA), 12월말주가(PRICE)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상장시장, 연도별-산업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장시장유형(MK), 연도더미(YR) 및 산업더미(IND)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Ecker et al. 2006; Frank and Goyal 2003; 배종일과 김진태 2012).

$$\begin{aligned}
 INFO1(or\ INFO2) = & a_0 + a_1KAM + a_2SIZE + a_3GRW + a_4LEV + a_5ROA \\
 & + a_6LOSS + a_7OWN + a_8FOR + a_9BIG4 + a_{10}UNB + a_{11}IA + a_{12}TA \\
 & + a_{13}PRICE + a_{14}MK + \sum YR + \sum IND + \varepsilon
 \end{aligned}$$

연구모형 (3)

<i>INFO1</i>	=	일별주식주식률의 변동성
<i>INFO2</i>	=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
<i>KAM</i>	=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이면 1, 도입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
<i>SIZE</i>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i>GRW</i>	=	총자산성장률(=당해 연도 총자산-직전년도 총자산) / 직전년도 총자산)
<i>LEV</i>	=	부채비율(=부채/자산)
<i>ROA</i>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LOSS</i>	=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

- OWN* = 대주주지분율
- FOR* = 외국인지분율
- BIG4*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UNB* = 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총자산)
- IA* = 무형자산(=무형자산 / 총자산)
- TA* = 유형자산(=유형자산 / 총자산)
- PRICE* = 12월말 주가의 자연로그 값
- MK*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이면 0

3. 변수측정

가. 이익의 질

본 연구는 이익의 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EQ1)과 회계처리의 보수성(EQ2)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Dechow et al.(1995)가 제시한 Modified Jones 모형에 따라 산출한다. 식 (1)은 재량적 발생액을 구하는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식 (1)을 산업-연도별로 회귀분석하여 추정된 잔차항(ϵ)이 각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의미한다. 이익이 조정되지 않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은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높은 이익의 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EQ1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또한 해당 값이 클수록 이익의 질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도록 EQ1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에 (-1)을 곱하여 측정한다.

$$TA/A = a_0(1/A) + b_1[(\Delta REV - \Delta REC)/A] + b_2(PPE/A) + \epsilon \tag{1}$$

- TA* = 총 발생액;
- A* = 기초총자산;
- ΔREV = 매출액의 변화분;
- ΔREC = 매출채권 증가액;
- PPE* = 감가상각자산.

본 연구는 Khan and Watts(2009)가 제시한 회계처리의 보수성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⁸⁾ Khan and Watts(2009)의 회계처리 보수성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 (2)를 연도별

8) 이석근 등(2015)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Khan and Watts(2009)의 C-score가 보수주의를 잘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C-Score 산출에 필요한 D^*R , $D^*R*Size$, D^*R*M/B , D^*R*Lev 의 회귀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이석근 등(2015)의 연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로 회귀분석하여 $d1 \sim d4$ 의 계수 값을 추정한다. 둘째, 앞에서 추정한 계수($d1 \sim d4$)와 각 기업의 SIZE, MB, LEV를 식 (3)에 대입하여 EQ2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EQ2는 값이 클수록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a_0 + (a_1SIZE + a_2MB + a_3LEV) + D \times (b_1 + b_2SIZE + b_3MB + b_4LEV) \\ + R \times (c_1 + c_2SIZE + c_3MB + c_4LEV) \\ + D \times R \times (d_1 + d_2SIZE + d_3MB + d_4LEV) + \varepsilon \quad \text{식 (2)}$$

$$EQ2 = d_1 + d_2SIZE + d_3MB + d_4LEV \quad \text{식 (3)}$$

- X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R = 연간누적주식수익률;
 D = $R < 0$ 이면 1, 아니면 0인 터미변수;
 $SIZE$ = 시가총액의 자연로그값;
 MB = 시가총액 / 자본;
 LEV = 부채 / 시가총액.

나. 정보비대칭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보비대칭 대용치인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INFO1)과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INFO2)을 사용한다(Bailey et al. 2003; Comprix et al. 2011; 김용식과 조상민 2014; 인창열 등 2017). 첫 번째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는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INFO1이다.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은 식 (4)와 같이 t 년도 4월부터 $t+1$ 년도 3월까지 1년간 일별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INFO1의 값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INFO1_t = \sigma(t\text{년도 4월부터 } t+1\text{년도 3월까지 일별주식수익률}) \quad \text{식 (4)}$$

$INFO1$ =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정보비대칭의 두 번째 대용치는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INFO2이다.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은 식 (5)와 같이 t 년도 4월부터 $t+1$ 년도 3월까지 1년간 일별비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이때 일별비기대수익률은 일별주식수익률에서 일별시장주식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다. INFO2은 값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NFO2_t = \alpha(t\text{년도 4월부터 } t+1\text{년도 3월까지 } RET - MRET) \quad \text{식 (5)}$$

- INFO2 =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
- RET = 일별주식수익률;
- MRET = 일별시장주식수익률.

4. 표본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주산업으로 2016년 또는 2017년에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이다.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감사제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고자 한다.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도입된다. 즉, 핵심감사제는 2016년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2014년부터 2017년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의 기업은 실험표본이며,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전인 2014년과 2015년의 기업은 대응표본이다.

본 연구는 결산일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한다. 추가적으로 표본의 이질성으로 인해 결과왜곡을 고려하여 자본잠식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통제변수 또는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은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698개의 표본이 선정되었다. <표 1>은 표본선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감사사항의 보고여부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보고서 본문을 직접 확인하여 수집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는 KIS-VALUE와 TS-2000에서 추출한다.

<표 1> 표본선정과정

표본선정기준	기업수	표본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 중 2016년 또는 2017년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기업	236	894
결산일이 12월말이 아닌 기업	(5)	(25)
자본잠식기업	(1)	(11)
통제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11)	(42)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	(26)	(118)
최종표본	193	698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표본에서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의 산업별-연도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2016년에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74개이며, 2017년에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79개이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일반적으로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을 보고한 기업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은 ‘종합 건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핵심감사제 도입기업의 연도-산업별 분포

분류 (중분류코드, 산업명)	전체표본 (2014-2017)	핵심감사제 도입기업	
		2016	201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1	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5	5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2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	7	9
24 1차 금속 제조업	11	3	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4	12	1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	5	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2	2
28 전기장비 제조업	47	12	1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3	46	4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2	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7	7
41 종합 건설업	150	37	39
42 전문직별 공사업	38	9	9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1	3	6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	1	1
58 출판업	25	4	5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	1	1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9	5	6
71 전문서비스업	18	4	4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3	6	6
합계	698	174	179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극단치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속변수들을 대상으로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 하였다. <표 3>을 보면 감사시간을 나타내는 TIME의 평균은 7.1213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약 1,238시간이 감사업무에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의 질의 대용치를 보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을 의미하는 EQ1은 평균(중위수)이 -0.0656(-0.0488)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EQ2는 평균(중위수)이 -0.3827(-0.0229)의 값을 보이고 있다. 정보비대칭을 나타내는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INFO1)과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INFO2)은 각각 평균(중위수)이 0.0290(0.0273)과 0.0276(0.02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 변수인 핵심감사제 도입여부(KAM)의 평균은 0.5057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체표본의 50.57%가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기술통계량(n=69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5%	중위수	75%	최댓값
TIME	7.1213	0.7864	5.6058	6.5806	6.9127	7.4628	9.1947
EQ1	-0.0656	0.0586	-0.2982	-0.0929	-0.0488	-0.0226	-0.0006
EQ2	-0.3827	1.0164	-3.7144	-0.5698	-0.0229	0.2598	1.1028
INFO1	0.0290	0.0105	0.0102	0.0219	0.0273	0.0344	0.0642
INFO2	0.0276	0.0103	0.0110	0.0203	0.0256	0.0330	0.0629
KAM	0.5057	0.5003	0	0	1	1	1
SIZE	26.1431	1.4822	23.5821	25.1596	25.7242	26.8834	30.3043
GRW	0.1281	0.4053	-0.6407	-0.0778	0.0539	0.2246	1.8943
LEV	0.4592	0.1917	0.0548	0.3041	0.4657	0.6049	0.8528
ROA	0.0195	0.0908	-0.3465	-0.0094	0.0242	0.0648	0.2488
LOSS	0.2837	0.4511	0	0	0	1	1
OWN	0.3938	0.1617	0.0190	0.2706	0.3918	0.5075	0.8486
FOR	0.0632	0.1111	0.0000	0.0068	0.0179	0.0681	0.7744
BIG4	0.4785	0.4999	0	0	0	1	1
UNB	0.0624	0.0749	0	0	0.0245	0.1096	0.2204
FRN	0.2162	0.2714	0	0	0.0582	0.4277	0.9748
IR	0.2189	0.1367	0.0000	0.1175	0.2062	0.2996	0.7391
IA	0.0260	0.0382	0.0000	0.0037	0.0111	0.0335	0.3550
TA	0.2062	0.1672	0.0002	0.0638	0.1813	0.3122	0.8614
LIQ	0.7920	0.5218	0.0272	0.4465	0.6719	1.0250	4.5694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5%	중위수	75%	최댓값
CON	0.7607	0.4269	0	1	1	1	1
PRICE	8.8420	1.2101	6.3801	8.0408	8.6278	9.4842	12.8240
MK	0.6576	0.4749	0	0	1	1	1

1) 변수설명

- TIME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EQ1 :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times(-1)$
 EQ2 : Khan and Watts(2009)가 제시한 보수주의 측정치
 INFO1 :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INFO2 :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
 KAM :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이면 1, 도입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GRW : 총자산성장률(=(당해 연도 총자산-직전년도 총자산) / 직전년도 총자산)
 LEV : 부채비율(=부채/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 :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
 OWN : 대주주지분을
 FOR : 외국인지분을
 BIG4 : BIG4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UNB : 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총자산)
 FRN : 수출액(=수출액/매출액)
 IR : 매출채권과 채고자산(=매출채권+채고자산)/총자산
 IA : 무형자산(=무형자산/총자산)
 TA : 유형자산(=유형자산/총자산)
 LIQ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CON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1, 아니면 0
 PRICE : 12월말 주가의 자연로그 값
 MK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면 1,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이면 0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는 평균이 26.1431(약 2,258억원)로 나타났다. 총자산 성장률(GRW)은 평균이 0.1281로 나타남으로써 평균적으로 총자산이 12.81%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0.4592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의 평균은 0.0195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당기순손실보고여부(LOSS)의 평균은 0.2837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체표본의 약 28.37%가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주주지분율(OWN)과 외국인지분율(FOR)은 평균이 각각 0.3938과 0.0632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인 규모를 나타내는 BIG4의 평균은 0.4785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체표본 중 약 47.85%가 BIG4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청구공사(UNB)의 평균은 0.0624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액 규모(FRN)는 평균이

0.2162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IR)은 평균이 0.2189이다. 또한 무형자산(IA)의 평균은 0.0260의 값을 보이고 있다. 유형자산(TA)의 평균은 0.2062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비율(LIQ)의 평균은 0.7920의 값으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CON)의 평균은 0.7607이므로 전체표본의 3/4이상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2월말 주가(PRICE)의 평균은 8.8420(약 6,919원)의 값으로 나타났다. 상장시장유형을 의미하는 MK의 평균은 0.6576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체표본 중 약 65.76%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핵심감사제 도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를 살펴보면 감사시간(TIME)은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가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SIZE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IME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단순히 기업규모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회계처리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EQ2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보다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전에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변량분석이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분석방법이라는 점에서 통제변수들을 고려하는 다변량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핵심감사제 도입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변수	핵심감사제 도입 이전 (n=345)		핵심감사제 도입 이후 (n=353)		T-test 검정통계량	Wilcoxon 검정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IME	7.0324	6.8416	7.2082	6.9603	-2.97***	-3.31***
EQ1	-0.0646	-0.0442	-0.0665	-0.0515	0.43	1.29
EQ2	-0.2815	0.0001	-0.4816	-0.0444	2.62***	2.05**
INFO1	0.0305	0.0292	0.0276	0.0251	3.68***	4.47***
INFO2	0.0290	0.0275	0.0262	0.0237	3.57***	4.53***
SIZE	26.0234	25.6154	26.2601	25.8067	-2.11**	-2.42**
GRW	0.0973	0.0396	0.1582	0.0629	-1.99**	-1.61
LEV	0.4591	0.4640	0.4594	0.4670	-0.02	-0.11
ROA	0.0150	0.0236	0.0239	0.0252	-1.29	-1.61
LOSS	0.2986	0	0.2691	0	0.86	0.86
OWN	0.3987	0.3990	0.3890	0.3870	0.79	0.80
FOR	0.0574	0.0150	0.0689	0.0217	-1.37	-2.80***
BIG4	0.5043	1	0.4533	0	1.35	1.35

변수	핵심감사제 도입 이전 (n=345)		핵심감사제 도입 이후 (n=353)		T-test 검정통계량	Wilcoxon 검정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UNB	0.0560	0.0144	0.0687	0.0360	-2.25**	-2.31**
FRN	0.2179	0.0652	0.2145	0.0475	0.16	0.61
IR	0.2239	0.2153	0.2141	0.1962	0.94	1.35
IA	0.0270	0.0126	0.0250	0.0098	0.70	1.57
TA	0.2163	0.2050	0.1963	0.1656	1.58	1.46
LIQ	0.8001	0.6742	0.7841	0.6708	0.41	0.45
CON	0.7391	1	0.7819	1	-1.32	-1.32
PRICE	8.7360	8.5311	8.9456	8.7291	-2.30**	-2.60***
MK	0.6696	1	0.6459	1	0.66	0.66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정보비대칭의 대응치인 INFO1과 INFO2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전보다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가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사항이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9)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이후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기 전보다 총자산성장률(GRW)이 높으며, 외국인지분율(FO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결과를 하나의 표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표 5>는 핵심감사제 도입여부와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핵심감사제 도입여부(KAM)와 TIME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AM과 EQ1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AM과 EQ2의 상관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며,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므로 타당성 있는 검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유혜영과 김새로나 2015). KAM과 정보비대칭(INFO1, INFO2) 간의 상관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9) 본 연구는 분석기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모두 없는 기업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특정연도의 자료만 있는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표본으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기간(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모두 있는 기업(145개)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본 분석의 결과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핵심감사제 도입과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n=698)

변 수	TIME	EQ1	EQ2	INFO1	INFO2
EQ1	0.1186 (0.0017)				
EQ2	-0.4802 (<.0001)	-0.0521 (0.1695)			
INFO1	-0.2486 (<.0001)	-0.2022 (<.0001)	0.1328 (0.0004)		
INFO2	-0.2481 (<.0001)	-0.1951 (<.0001)	0.1275 (0.0007)	0.9935 (<.0001)	
KAM	0.1118 (0.0031)	-0.0163 (0.6676)	-0.0985 (0.0092)	-0.1381 (0.0003)	-0.1340 (0.0004)

-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 2)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의미함(양측검증).

핵심감사제 도입여부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다. SIZE와 KAM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핵심감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GRW와 KAM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장성이 높을수록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UNB와 KAM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청구공사가 클수록 핵심감사제를 도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기말주가를 의미하는 PRICE와 KAM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기말주가가 클수록 핵심감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6〉 핵심감사제 도입과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n=698)

변수	KAM	SIZE	GRW	LEV	ROA	LOSS	OWN	FOR	BIG4	UNB	FRN	IR	IA	TA	LIQ	CON	PRICE
SIZE	0.08**																
GRW	0.08**	-0.05															
LEV	0.00	0.37***	-0.02														
ROA	0.05	0.13***	0.24***	-0.30***													
LOSS	-0.03	-0.10**	-0.19***	0.30***	-0.70***												
OWN	-0.03	0.16***	-0.11***	-0.03	0.15***	-0.14***											
FOR	0.05	0.39***	0.05	-0.05	0.13***	-0.11***	0.01										
BIG4	-0.05	0.46***	-0.06	0.19***	0.06	-0.06	0.13***	0.20***									
UNB	0.08**	0.22***	-0.01	0.31***	0.02	0.03	0.09**	0.01	0.14***								
FRN	-0.01	0.06	0.09**	0.01	0.03	0.06*	-0.11***	-0.01	0.01	0.23***							
IR	-0.04	-0.19***	0.07*	-0.05	0.10***	-0.05	-0.02	-0.13***	-0.11***	-0.32***	-0.02						
IA	-0.03	-0.16***	0.04	-0.10**	-0.02	0.03	-0.21***	-0.10***	-0.10***	-0.08**	0.13***	0.09**					
TA	-0.06	-0.10***	-0.05	-0.01	0.01	-0.02	-0.04	-0.06	0.05	-0.15***	0.18***	0.06	0.08**				
LIQ	-0.02	0.20***	-0.04	0.62***	-0.28***	0.23***	0.01	-0.10***	0.13***	0.02	0.03	-0.16***	-0.06	0.23***			
CON	0.05	0.26***	0.03	0.09**	0.03	0.02	-0.03	0.10***	0.17***	0.05	0.11***	-0.04	0.02	-0.19***	0.03		
PRICE	0.09**	0.57***	0.07*	-0.06	0.33***	-0.33***	0.18***	0.36***	0.33***	0.05	0.06	-0.12***	-0.02	-0.05	-0.09**	0.26***	
E																	
MK	-0.02	-0.64***	0.10***	-0.37***	0.03	-0.01	-0.24***	-0.27***	-0.23***	-0.15***	0.05	0.17***	0.19***	0.06*	-0.22***	-0.04	-0.32***

1) 변수 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2. 회귀분석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표 7>은 가설 1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을 살펴보면 핵심감사제 도입여부를 의미하는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7>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SIZE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거래 및 자산으로 인해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감사업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OA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이 좋을수록 감사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성이 높을수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감사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감소시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BIG4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RN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액의 비중이 클수록 관련된 서류를 확보하고 확인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표 7> 핵심감사제 도입과 감사시간(TIME) (n=698)

변수	계수	t-값	p-값
절편	-4.3106	-11.07***	<.0001
KAM	0.1077	3.51***	0.0003
SIZE	0.4148	30.83***	<.0001
GRW	-0.0399	-1.34*	0.0906
LEV	0.0440	0.53	0.2965
ROA	-0.9122	-4.96***	<.0001
LOSS	0.0170	0.48	0.3167
OWN	-0.0716	-0.89	0.1871
FOR	0.0552	0.49	0.3134
BIG4	0.3541	13.24***	<.0001
UNB	0.0731	0.38	0.3509
FRN	0.1786	3.28***	0.0006
IR	-0.0006	-0.01	0.4974
CON	0.1520	5.37***	<.0001
MK	0.0030	0.08	0.4671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수정 R ²		0.8648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단측검증).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한다. <표 8>의 첫 번째 열은 종속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EQ1)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두 번째 열은 종속변수로 회계처리의 보수성(EQ2)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8>을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EQ1인 경우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수가 EQ2인 경우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8>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한다.

<표 8> 핵심감사제 도입과 이익의 질 (n=698)

변수	종속변수 = EQ1			종속변수 = EQ2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1823	-2.45***	0.0074	7.2983	8.57***	<.0001
KAM	0.0089	1.52*	0.0647	0.4537	2.68***	0.0038
SIZE	0.0058	2.29**	0.0111	-0.2570	-9.12***	<.0001
GRW	-0.0151	-2.60***	0.0048	0.1203	1.85**	0.0327
LEV	-0.0642	-3.42***	0.0004	-1.3103	-6.24***	<.0001
ROA	-0.0980	-2.73***	0.0033	0.3561	0.88	0.1890
LOSS	-0.0161	-2.33**	0.0101	-0.0737	-0.95	0.1719
OWN	0.0007	0.04	0.4822	-0.3414	-1.94**	0.0266
FOR	-0.0196	-0.89	0.1875	0.3332	1.35*	0.0894
BIG4	0.0000	0.00	0.4989	0.0887	1.51*	0.0661
UNB	0.0170	0.48	0.3161	-0.8418	-2.11**	0.0175
IA	-0.0830	-1.30*	0.0969	0.1054	0.15	0.4415
TA	0.0595	3.48***	0.0003	-0.2848	-1.49*	0.0688
LIQ	0.0156	2.50***	0.0063	-0.0726	-1.04	0.1491
MK	-0.0110	-1.58*	0.0571	-0.0164	-0.21	0.4163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수정 R ²	0.0780			0.6157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단측검증).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EQ1인 경우 SIZE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실패로 인한 비용 및 명성하락이 크기 때문에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LEV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다는 예상과 일치한다. ROA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남으로써 총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LOSS의 회귀계수는 손실이 발생할수록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과 일치하게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가 EQ2인 경우 SIZE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수주의 성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Givoly et al.(2007)과 유사한 결과이다. GRW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성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가능성 및 소송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LEV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OWN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어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FOR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남으로써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9〉 핵심감사제 도입과 정보비대칭 (n=698)

변수	종속변수 = INFO1			종속변수 = INFO2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945	8.14***	<.0001	0.0949	8.27***	<.0001
KAM	-0.0065	-7.16***	<.0001	-0.0057	-6.33***	<.0001
SIZE	-0.0029	-6.73***	<.0001	-0.0030	-7.18***	<.0001
GRW	0.0023	2.48***	0.0067	0.0021	2.38***	0.0087
LEV	0.0113	4.51***	<.0001	0.0118	4.76***	<.0001
ROA	-0.0131	-2.36***	0.0093	-0.0148	-2.69***	0.0037
LOSS	0.0013	1.22	0.1117	0.0012	1.10	0.1350
OWN	-0.0095	-3.88***	0.0001	-0.0080	-3.32***	0.0005
FOR	0.0030	0.87	0.1929	0.0034	1.01	0.1574
BIG4	-0.0023	-2.74***	0.0032	-0.0023	-2.77***	0.0029
UNB	-0.0052	-0.94	0.1748	-0.0050	-0.92	0.1787
IA	-0.0089	-0.89	0.1863	-0.0086	-0.87	0.1920
TA	-0.0047	-1.82**	0.0345	-0.0052	-2.05**	0.0205
PRICE	0.0005	1.23	0.1099	0.0007	1.74**	0.0412
MK	-0.0010	-0.96	0.1693	-0.0011	-1.03	0.1519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수정 R ²	0.3025			0.2918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단측검증).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한다. <표 9>의 첫 번째 열은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INFO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두 번째 열은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INFO2)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9>의 첫 번째 열에 따르면 KAM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열을 보면 KAM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임으로써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3은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결과에 따르면 SIZE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보환경이 양호하여 정보비대칭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GRW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성이 높을수록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GRW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LEV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적 위험을 감추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ROA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높아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강건성분석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증분(Change)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즉,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전의 증분(2014년에서 2015년)값과 도입 후의 증분(2015년에서 2016년)값을 비교하여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증분 값으로 설정하며, 증분 값은 당해연도에서 직전년도의 값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강건성 분석에서는 총 318개의 표본이 사용된다. 강건성 분석의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다.

<표 10>의 Panel A를 보면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 10>의 Panel A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 <표 10>의 Panel B를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EQ1인 경우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EQ2인 경우도 KAM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의 Panel C에서 종속변수가 INFO1인 경우와 INFO2인 경우 모두 KAM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이 나타났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및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표 10>의 Panel C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한다.

<표 10> 증분 값을 이용한 분석 (n=318)

Panel A. 핵심감사제 도입과 감사시간

변수	종속변수 = $\Delta TIME$		
	계수	t-값	p-값
절편	-0.3414	-2.20**	0.0142
KAM	0.0395	1.55*	0.0612
통제변수	Included		
수정 R ²	0.0530		

Panel B. 핵심감사제 도입과 이익의 질

변수	종속변수 = $\Delta EQ1$			종속변수 = $\Delta EQ2$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159	-0.29	0.3857	-0.0872	-0.15	0.4409
KAM	0.0289	3.22***	0.0007	0.8806	9.16***	<.0001
통제변수	포함			포함		
수정 R ²	0.0349			0.2485		

Panel C. 핵심감사제 도입과 정보비대칭

변수	종속변수 = $\Delta INFO1$			종속변수 = $\Delta INFO2$		
	계수	t-값	p-값	계수	t-값	p-값
절편	0.0022	0.32	0.3759	0.0025	0.36	0.3612
KAM	-0.0110	-9.41***	<.0001	-0.0092	-7.82***	<.0001
통제변수	포함			포함		
수정 R ²	0.3357			0.2796		

1)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단측검증).

V. 결론

국내에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의 주요내용은 핵심감사제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계속기업 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이다.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을 통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의 효과를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핵심감사제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수주산업에서 핵심감사제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으로 인한 효과를 일정부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주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심감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주산업에서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 이익의 질 및 정보비대칭이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가 2016년부터 적용되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을 실험표본(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의 기업)과 대응표본(핵심감사제의 도입 이전인 2014년과 2015년의 기업)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며,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일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 및 비기대수익률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이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건성 분석으로 증분 값을 사용하여 분석에서도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익의 질이 향상되며,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는데 공헌할 것이다.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정보와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실무적·학문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 시행초기에

제도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와 제도적, 법률적 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수정하여 도입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핵심감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핵심감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핵심감사제는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핵심감사제 도입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익의 질이 향상되며 정보비대칭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감사제 도입시 의도하였던 회계신뢰성 제고와 투자자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핵심감사제의 전면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은 전면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가 아직 상장회사에 전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수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상장사에 핵심감사제의 전면 도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핵심감사제가 상장기업에 전면 도입되면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감사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익의 질 대용치 및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다양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

【 참고 문 헌 】

- 권수영, 기은선,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6권 제4호, 2011, pp.95-137.
- 권수영, 정문기, 황유선, “감사파트너 산업전문성과 보수주의”, 「회계저널」 제24권 제3호, 2015, pp.143-183.
- 김광윤, 김한수, 박성진,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도입이 국내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2016, pp.509-531.
- 김석현, 하순금, 조용언, “내부통제의 질, 감사인규모, 보수주의의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2013, pp.297-328.
- 김영길, 박진모, 김성환, “경영자의 이익예측정보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28권 제4호, 2013, pp.1-24.
- 김용식, 조상민, “K-IFRS에 따른 재무보고의 경제적 효과”,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2014, pp.73-103.
- 김지홍, 장진호, 여은정, “공정공시 전후의 이익공시에 대한 시장반응비교”, 「경영학연구」 제34권 제6호, 2005, pp.895 - 1915.
- 김현진, 김정교, “감사인의 적격성이 보수주의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64집, 2015, pp.253-278.
- 남혜정, 노밖은, “기업의 IR활동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특성”,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2013, pp.53 - 82.
- 류승우, 이종천, 김응길, 한승수,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4호, 2015, pp.213-246.
- 마희영, 권수영,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51호, 2010, pp.119-155.
- 박종성, 오윤숙, 조은주, 조은혜, “감사인과 경영자 간 갈등상황이 존재할 때 감사보고서 발행이 지연되는가?”, 「회계연구」 제16권 제4호, 2011, pp.73-99.
- 배길수, 이재은, 노준화, 최승욱,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한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대응”, 「회계학연구」 제40권 제6호, 2015, pp.81-117.
- 배종일, 김진태, “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12, pp.141-172.
- 백혜원, 김지홍,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시장기대치 달성을 위한 경영자의 행태 변화”, 「회계학연구」 제36권 제3호, 2011, pp.217-251.
- 손성규, 백혜원, 고재민, “경영자 이익예측공시 유무에 따른 차별적 시장반응”,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3호, 2009, pp.57 - 94.

- 손성규, 이영한, 신용인,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위험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4호, 2006, pp.335-361.
- 신찬휴, 김정교, “2000년대의 감사환경 변화와 감사인 보수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증권관련집단 소송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0권 제1호, 2015, pp.289-339.
- 심재연, “외부감사인과 기업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감사 시간, 감사 보수 및 기업 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 2018,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 양동훈, “이익유연화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2호, 2008, pp.55-79.
- 오상욱, 조광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여부와 관련성 - 감사투입 시간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6호, 2016, pp.201-225.
- 우용상, 이호영, “지급보증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9호, 2009, pp.43-74.
- 유혜영, 김새로나,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재무보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0권 제6호, 2015, pp.41-80.
- 이명곤, 이세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이익의 질적 속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2호, 2009, pp.783-811.
- 이명곤, 이세철, 장석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 pp.73-104.
- 이보미, 박보영, “진행기준 수익인식 방법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 미청구공사 계정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제36권 제3호, 2017, pp.151-165.
- 이석근, 양동훈, 조광희, “상장폐지기업의 상장폐지전 보수주의 성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5호, 2015, pp.1-34.
- 이양식, 박종찬, “미청구공사 계정금액이 신용등급과 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9권 제1호, 2017, pp.69-97.
- 이재은, 노준화, 심영,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7권 제4호, 2015, pp.111-147.
- 인창열,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2019,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 인창열, 김태희, 이명곤, “재무분석가의 현금흐름예측 활동이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29권 제2호, 2017, pp.31-70.
- 장석오, “정보비대칭과 이익조정”,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1호, 2007, pp.221-245.
- 장석진, 이명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5권 제2호, 2013, pp.145-184.
- 전규안, 박종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발생액 정보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8권 제2호, 2009, pp.319-350.
- 지현미, 문상혁, “소송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 감사연구」 제43호, 2006, pp.311-336.
- 최정호,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5, pp.107-149.
- 최정호, 이정우, “감사품질과 이익의 질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48호, 2008, pp.109-144.
- 최종원, 이경태, “잠재적 소송비용이 보수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3호, 2008, pp.229-260.
- 최현돌, 윤재원,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정보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4호, 2006, pp.145-174.
- 현승임, 한종수, 이지원, “최근 국내 수주산업의 회계절벽: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5호, 2016, pp.305-335.
- Ahmed, A. S., and S. Duellma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3 No.2-3, 2007, pp.411-437.
- Armstrong, C. S., M. E. Barth, A. D. Jagolinzer, and E. J. Riedl, “Market Reaction to the Adoption of IFRS in Europe”, *The Accounting Review* Vol.85 No.1, 2010, pp.31-61.
- Bailey, W., H. Li, C. X. Mao, and R. Zhong, “Regulation Fair Disclosure and Earnings Information: Market, Analyst, and Corporate Responses”, *Journal of Finance* Vol.58 No.6, 2003, pp.2487-2514.
- Barron, O., J. Pratt, and J. Stice, “Misstatement Direction, Litigation Risk, and Planned Audit Invest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9 No.3, 2001, pp.449-462.
- Barth, M., W. R. Landsman, and M. H. La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6 No.3, 2008, pp.467-498.
- Bell, T., R. Doogar, and I. Solomon, “Audit Labor Usage and Fees under Business Risk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6 No.4, 2008, pp.729-760.
- Bhattacharya, N., H. Desai, and K. Venkataraman, “Does Earnings Quality Affect Informations Asymmetry? Evidence from Trading Co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30 No.2, 2013, pp.482 - 516.
- Brasel, K., M. Doxey, J. Grenier, and A. Reffett, “Risk Disclosure Preceding Negative Outcomes: The Effects of Reporting Critical Audit Matters on Judgments of Auditor Li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Vol.91 No.5, 2016, pp.1345-1362.
- Cahan, S., and W. Zhang, “After Enron: Auditor Conservatism and Ex-Andersen Clients”, *The Accounting Review* Vol.81, 2006, pp.49-82.
- Caramanis, C., and C. Lennox,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 Economics* Vol.45 No.1, 2008, pp.116-138.
- Chan, K. C., B. Farrell, and P. Lee,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Reporting Material Internal Control Weaknesses under Section 404 of the Sarbanes - Oxley Ac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27 No.2, 2008, pp.161-179.
- Christensen, B. E., S. M. Glover, and C. J. Wolfe, "Do Critical Audit Matter Paragraphs in the Audit Report Change Nonprofessional Investors' Decision to Inves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33, 2014, pp.71-93.
- Comprix, J., R. Graham, and J. Moore,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Book-Tax Differences on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33 No.1, 2011, pp.51-78.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70 No.2, 1995, pp.193-225.
- DeAngelo, L.,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 No.3, 1981, pp.183-199.
- Doyle, J., W. Ge, and S. McVay, "Accruals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82 No.5, 2007, pp.1141-1170.
- Ecker, F., J. Francis, I. Kim, P. M. Olsson, and K. Schipper, "A Returns-Based Representation of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Vol.81 No.4, 2006, pp.749-780.
- Fehle, F., "Bid-Ask Spreads and Institutional Ownership",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Vol.22 No.4, 2004, pp.275-292.
- Francis, J., and J. Krishnan, "Evidence on Auditor Risk-Management Strategies before and after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9 No.2, 2002, pp.135-157.
- Frank, M., and V. Goyal, "Testing the Pecking Order Theory of Capital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67, 2003, pp.217-248.
- Gimbar, C., B. Hansen, and M. E. Ozlanski, "The Effects of Critical Audit Matter Paragraphs and Accounting Standard Precision on Auditor Li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Vol.91 No.6, 2016, pp.1629-1646.
- Givoly, D., C. Hayn, and A. Natarajan, "Measuring Reporting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Vol.82 No.1, 2007, pp.65-106
- Habib, A., and B. U. Bhuiyanb,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the Audit Report Lag",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Vol.20, 2011, pp.32-44.
- Jayaraman. S., "Earnings Volatility, Cash Flow Volatility, and Informed Trad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46 No.4, 2008, pp. 809-851.

- Jiang, L., and J. B. Kim, “Foreign Equity Ownership and Information Asymmetry: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Vol.15 No.3, 2002, pp.185-211.
- Khan, M., and R. L. Watts, “Estimation and Empirical Properties of a Firm-Year Measure of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48, 2009, pp.132-150.
- Lee, H. Y., and V. Mande, “The Effect of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on Accounting Discretion of Client Managers of Big 6 and Non-Big 6 Auditor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22 No.1, 2003, pp.93-108.
- Raghunandan, K., and D. Rama, “SOX Section 404 Material Weakness Disclosures and Audit Fe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25 No.1, 2006, pp.99-114.
- Sirois, L. P., J. Bedard, and P. Bera, “The Informational Value of Key Audit Matters in the Auditor’s Report: Evidence an Eye-Tracking Study”, *Accounting Horizons* Vol.32 No.2, 2018, pp.141-162.

부록.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보고서 본문 사례(대우조선해양, 201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본인은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감사항목들에 대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7(건설계약)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총계약수익의 추정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각각 96,845백만원 증가, 797,27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은 각각 1,500,716백만원증가하고, 미래손익은 606,593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업계현황으로 인해 총계약수익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이 당기손익(또는 미래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이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 발주처에 보고된 공정률과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차이 원인에 대한 검토
-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감사 절차
 - 계약조건 검토
 - 유사 선종 선가의 유의적 하락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검토
 - 발주처 재무상태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당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잔여 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272,699백만원 감소합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회계연도에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예측하지 못한 공정지연, 공정 비효율 등으로 인하여 예정원가 대비 실제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한 바가 있었으며, 당기에는 상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주요 원자재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효과 등으로 인하여 총계약원가 추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 등의 변동위험에 따른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 또는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이 총 계약원가 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시사절차 수행
- 주요 프로젝트의 총 계약원가 산정 내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통제 절차 확인
- 총 계약원가의 각 구성요소 (재료비 물량 정보, 노무시간 정보 등)에 대한 현업부서 추정자료와의 대사 및 합리성 검토
- 총 계약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단가 및 시간당 노무비의 합리성 검토
- 총 계약원가의 구성항목 중 사업 및 리스크관리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험요인 파악 및 총계약원가 반영 여부 질문
- 유사 프로젝트 총 계약원가와의 비교 및 합리성 검토
- 보고기간 후 발생원가의 총 계약원가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다. 공사진행률 산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7(건설계약)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말 진행 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총계약원가의 추정 변동액은 797,27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누적계약원가는 33,112,149백만원입니다. 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효과 등으로 인하여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총계약원가와 누적계약원가 금액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계약원가 및 총계약원가 금액변동에 대한 분석적 검토
- 계약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누적발생계약원가와 추정총계약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발생여부 및 관련 회계정책에 대한 검토
- 발주처에 보고된 공정률과 투입법에 의한 진행률 차이원인 등 질문
- 회사의 직접비 원가투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젝트별 원가투입 및 대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 회사의 간접비 배분 정책을 이해하고 간접비 배분과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 당기 발생한 투입원가 중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투입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프로젝트별 원가귀속의 적정성을 테스트

라.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는 미청구공사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미청구공사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발주처의 재정상황 악화, 공사 진행 지연 또는 선가의 하락으로 인한 계약취소가능성의 증가 및 인도 일정의 연기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평가한 후,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해당공사로부터 회수될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7(건설계약)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회사가 계상한 미청구공사금액은 각각 4,046,599백만원 및 4,462,694백만원으로 이는 총 자산의 36.7% 및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발주처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도 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경영진이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유의적인 미청구공사가 인식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생 사유 질문
- 유의적인 미청구공사가 인식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파악
- 계약취소가능성 및 발주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 근거 검토

마. 공사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회사의 공사변경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이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공사변경과 관련된 발주처의 계약금액 변경 승인의 근거 서류에 대한 시사절차
- 계약금액의 유의적 증감 사유에 대한 질문
- 원가보상항목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질문
- 발주처의 공사변경에 따른 수익금액 승인 또는 합의 여부 또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

바. 지연배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4(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기말 현재 계약상 공사종료 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지연배상금의 최대금액은 347,81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 중 당기말 현재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의 최선의 추정치는 137,182백만원으로 이는 계약수익금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의 추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회사의 지연배상금의 회계처리와 공시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별 지연배상금 조건 및 계약상 인도일, 주요 Milestone에 대한 계약상 조건 검토
- 지연배상금 발생 예상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인도일과 계약상 예정 Milestone 달성일자의 비교 검토
- 경영진의 지연배상금 추정 근거에 대한 합리성 검토

기타사항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우리가 감사하였으며, 2017년 3월 29일자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가정의 적정성 평가 및 매출원가의 기간귀속과 관련된 감사 범위 제한을 근거로 한정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영 식

2018년 3월 22일

A Study on the Effect of Key Audit Matters

In, Chang Yeol* / Lee, Myung Gon**

ABSTRACT

Due to the 'accounting cliff' phenomenon of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mpany Limited in 2015, the suspicion of window-dressing accounting of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has become an issue, and as the 'accounting cliff' phenomenon has repeatedly occurred in other companies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such as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and Hyundai Engineering Company Limited, the issue of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s accounting treatment and accounting transparency received attentio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generally recognizes revenues in line with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and the calculation of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requires quite some estimation and manager's judgment. Perfect estimation is impossible. That is, if the estimation is not appropriate,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cannot be measured appropriately and wrong revenues will be recognized. Therefo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introduced the key audit matters into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to improve poor accounting due to such uncertainty in estimation.

The key audit matters were introduced somewhat in a hurry when being prepared for introduction as the suspicion of window-dressing accounting of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became an issue. Therefore,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key audit matters were raised arguing that since the key audit matters were introduced into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in a hurry, the relevant costs are bigger than the effects. In addition, there are also voices of concern arguing tha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the most core accounting information and risk factors of firms may be disclosed to investors so that side effects may appear. In addition, given that key audit matters are implemented only in a few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and have not been introduced into the US and Germany where audit environments are similar to those in South Korea,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the positive effects of the key audit matters would appear in the domestic environments is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fulness of the key audit matter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key audit matters on audit time, the quality of earnings,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udit time was shown to have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Second,

* Ph.D., Dep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Primary author), E-mail: rebierth@hanyang.ac.k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mg@hanyang.ac.kr

the quality of earnings has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Specifically, it was identified that after the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and that the conservatism of accounting treatments increased. Third, information asymmetry was shown to have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That is, the volatility of daily stock returns and the volatility of unexpected returns are shown to be lower after the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key audit matters have been conducted mainly as survey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cannot be easily found. Also, negative opinions have been raised arguing that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In this situation, analyzing the usefulness of key audit matters should be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meaningful. In addi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issipation of negative opinions and voices of concern through empirical evidence that positive effects are genera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Finally, this study is judged to help improve the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key audit matters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positive effect of key audit matt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modified the key audit matters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wher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environments are different from South Korea before introducing the key audit matters into South Korea. Although the key audit matters were modified to fit domestic circumstances,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on whether the positive effects of key audit matters would appear in South Korea too. Theref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Key Words : Key Audit Matters, Audit Time,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Asymmetry